

제10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7. 14(화) 10:00~12:30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김성균, 김성복, 김용철, 노승범
박기웅, 박태욱, 서용, 이혜선, 임성훈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6건 12작품(조각 7, 회화5)
[재심 1건, 신규 5건]
- ◆ 결 과 : 승인 7작품, 미승인 5작품

위원 발언 내용

<위원장>

2015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9명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

다른 의견 없으시면 채점을 먼저 진행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.

처음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

- : 작품심의방법은 1안 위원별 채점 후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각자 자료를 보시고 총 12작품을 점수를 내주시고, 50점 이상 시간은 20분정도 각자 채점하도록 하시죠. 공모된 작품

은 가산점 10점이 있으며, 6-1, 6-2 지난번 부결된 작품이고, 작품을 변경하여 심의상정한 건입니다.

- : 맨 마지막 작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? (담당 설명)
- : 작성하신 것을 토대로 토론이 필요한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번 작품 말씀해주세요. 1번은 구조계산서가 있습니다.
- : 실제로 만들었을 때 머리가 이렇게 큰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. 경찰청앞이기 때문에 순경모습을 한거 같은데요.
- : 이건 불가능해요. 3D니까 가능하지, 조각으로는 불가능해요.
- : 가운데 쇠심을 박아야 합니다. 가능하게 하려면 기초석부터 철물을 지지하게 하면 가능한데 이것으로 보면 불가능해요. 기초랑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.
- : 양카로 박아왔는데요.
- : 기초랑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. 15페이지에 조각위치를 보면 조정위에 그냥 얹어 놓은 거 같습니다. 다시 배치해야 할 거 같습니다.
- :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보여주면 좋은데, 작품만 그래픽으로 보여주니,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.
- : 접근성이 20점이 있잖아요. 접근성에 대해 점수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.
- : 위치는 작가가 시공사랑 협의해서 정했을 겁니다.
- : 채점기준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.
- :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. 사람이 만지거나, 올라타면 가까이 있음 좋은 것이나 멀리서 보는 것이 좋은 것 일수도 있고 작품에 따라 적절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
- : 회화는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를 평가하는 항목과 맞지 않

습니다. 회화랑, 조각이랑 분리를 해야 할거 같습니다. 평가점 수표를 조정해야 합니다.

- : 네 채점기준과 심의관련 서식 전반에 대해 지금 개선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.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
- : 조형미, 형식미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.
- : 설치비용 사용계획서 보면 조각이랑 회화랑은 산출방식이 다른데 같은 서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. 조각은 원형제작비가 있지만 회화는 다릅니다. 특히 가격산정표 보시면 회화와 조각의 가격표를 다르게 해야 한다. 창작비 20%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회화의 경우는 거의 80%이상입니다. . 20페이지 보면 창작비 800만원 제작비 인건비 1800만원, 모형 원형 800만원인데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. 작가의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 그런거 같은데, 문제가 있습니다.
- : 관이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
- : 작가창작비를 20%로 책정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. 조수를 쓰는 것도 아니고, 조각은 조수가 있어야 하는데, 회화 평면 작업에 이렇게 하면 맞지가 않습니다.
- : 바뀌야 합니다.
- : 가격 거부를 해야 합니다.
- : 너무 오래된 채점표입니다.
- : 현재 이런 서식들을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. 회화에 대해서는 가격책정방법에 관해 검토하겠습니다.
- :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환경과의 조화, 접근성이 같은 맥락이고, 입체와 평면을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. 지금은 변경이 어려우므로 이 테두리안에서 해야 합니다. 예전에 미술장식품이라는 말이 미술작품으로 바뀌었는데, 이런 부분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.

- : 포돌이, 포순이는 이미 있는 캐릭터인데 이걸 조각으로 해서 창작비를 줘야 하는건지 의문입니다. 예술성을 인정해야 할 수 있는건지 토론이 필요합니다.
- : 맞습니다. 독창성을 심의해야 하는 건데 이 작품은 많이 봐온 이미지를 돌로 제작을 한 것 뿐입니다.
- : 경찰서측과 작가가 디자인에 관해 여러번 수정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.
- : 경찰서의 세 작품은 모두 같은 작가인가요?
- : 네 같은 작가입니다.
- : 재료를 청동이나, 폴리 등으로 하는게 나올 거 같은데요. 돌로 얇은 판위에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재료 선택입니다.
- : 작품성격상 굳이 포돌이, 포순이를 화강암으로 깎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
- : 래진으로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가려면 재료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.
- : 포돌이를 조각으로 해서 놓는 것은 조각가에게도 좋지 않습니다. 이것은 창작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조각가의 이름으로 작품처럼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.
- : 2번 작품 보시죠.
- : 포돌이, 포순이를 창작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낙제점수를 줘야 하는건지..
- : 점수로 주시거나 의견을 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보니 1번 작품은 1점은 큰 작품으로 하면서 2점을 서비스로 한 거 같습니다. 안전성을 위해 재료를 바꾸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.
- : 돌로 작업 하는 작가가 브론즈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? 조형적으로 보면 좀 심합니다. 포돌이, 포순이 차지하고라도,

얼굴작품은 너무 많은데요. 저희가 아는 그 작가분인지 모르겠습니다.

- : 이 작품을 작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. 아마도 그 작가일 거 같습니다. 작가를 확인해 보죠.
- : 그러죠. 표절했다면 안되니까요.
- : 건축물앞의 조형물이므로 의무적으로 심의는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.
- : 작품심사는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, 화강석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료를 바꾸는 방안도 가능합니다. 참고하셔서 점수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2번 작품 보시죠.
- : 좋아 보입니다. 별문제가 없어 보이네요.(다들 동의)
- : 작가가 어떻게 푸는가가 중요합니다.
- : 숙였을 때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.
- : 구조계산서를 첨부했습니다.
- : 네 그럼 문제 없습니다.
- : 3번 작품 보시죠. 10점 가산점이 있는 작품입니다. 공모작품입니다. 서울시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보통 경쟁률이 5대1를 넘는다고 합니다.
- : 4페이지 보면 조형물 위치가 방향성이 있습니다. 15페이지를 보면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는 문제, 방향성이 없습니다. 장소가 적합하지 않습니다. 위치랑 맞지 않습니다.
- : 이걸 준공이 언젠가요?
- : 내년입니다.
- : 부결이 되면 작가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지나요?
- : 다음 차선자에게 돌아갑니다.
- :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?

- : 작품 공모를 하면 가격을 보면 4500, 3000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낮은 편입니다. 문제가 없으면 조형의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가격을 보면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.
- : 만약 떨어진다면 2등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이보다 좋은 작품 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. 심의를 거친 만큼 존중해야 합니다.
- : 현장에서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나요?
- : 위치를 바꾸는 제안을 권고하면 좋겠습니다.
- : 4번 작품입니다. 이것도 공모 당선작품입니다.
- : 가격이 너무 낮습니다. 빛을 내서 작품을 해야할거 같습니다.
- : 5번 작품은 회화작품입니다.
- : 한 건물에 주제가 다른 구상과 추상 작품이 이렇게 섞여있는 걸 좋게 봐야 하나요?
- : 이 작품이 크기로 보면 2미터 60, 약 100호인데,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작품가를 산정하는데, 대학생이고 4천만원이면 비싸고 그림만 보면 이 가격에 구입해서 거는게 말이 안됩니다.
- : 작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. 하이퍼리즘이고, 20대 작가라면 작품만 보고 판단이 힘듭니다. 50대의 중견작가면 100호가 넘을 때 3, 4천 문제가 없지만, 평가된 적이 없는 대학생이면 문제가 됩니다.
- : 작가명을 공개하기 힘들면 위원장만 보시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.
- : 그림 이름을 한번 볼까요?
- : 작가의 경력을 첨부해야 합니다.
- : 심의 중에는 공개하지 않으나, 서류는 받고 있습니다.
- : 회화는 특히 아무것도 없이 작가정보 없이 작품을 판단하기 힘듭니다.
- : 참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: 대학생을 고용해서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가격에 걸맞는 작품이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.
- : 네 경력 있는 작가의 작품입니다.
- : 건물주가 작가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.
- : 건축입장에서 보면, 그림, 가격, 적정성 등을 주로 평가하는데요. 이 건물에서 건축비의 1%를 투자해서 하는 사유가 공공성입니다. 건물에 걸맞는 위치선정이 필요합니다. 이 건물에서 예술작품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, 공공성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.
- : 6번 작품 보시죠. 조각 1, 그림이 4점이네요. 부결된 작품을 변경해서 상정한 작품입니다.
- : 작가는 같은거죠?
- : 네
- : 작가가 떨어지면 몇 번까지 도전할 수 있는 건가요?
- : 상관없습니다. 건축주가 바꾸지 않는한.
- : 공간이랑 전혀 안어울립니다. 구조도 위험해 보입니다.
- : 이건 재심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게 공간을 갑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공간이 좁은데 2억 6천 작품이란게 의문입니다.
- : 11미터가 앉는 의자까지 포함된 거 같은데. 이것도 작품가에 포함된건가요.
- : 포함된 걸 겁니다.
- : 공간이랑 어울리지 않는 게 문제인거 같습니다.
- : 네. 그럼 토론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개별 채점해서 제출해 주세요.

<채점 진행>

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<위원장>

- 오늘은 12개 작품 중 1-2, 1-3번과 5-2, 5-3, 5-4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0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